

“고3은 학교 가는데”... 학원 못가는 재수생은 발만동동

재수생들 “수능 앞두고 스피트 올려야 하는데” “고3 학생들 학교에서 연속성 있는 수업 들어” “수시 지원 상담, 지소서 상담도 원활치 못해” 코로나 탓...11일까지 대형학원 대면수업 멈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 달 이상 수도권 대형학원의 대면 수업이 멈추자 재수생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3학년은 등교하는데, 재수생 등은 등원도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일 사이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수능을 약 59일 앞둔 재수생을 중심으로 학원에 등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다수가 등교 수업을 받은 것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재수생 김모(19)씨는 “현역(고3) 학생들은 대부분 등교하는데, 저희는 대부분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며 “지습실만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능을 바로 앞에 두고

는 저희들은 막판 스피트라도 올려야 하는 시기”라며 “학원을 가지 못하는 텅이 길어져서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조모(20)씨도 “고3 다수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 연속성이 있다”며 “재수생은 단지 300인 이상 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등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3은 등교하고 재수생은 등원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주 집합금지, 또 2주 연장, 2주 연장을 반복해왔다”며 “불안감만 많이 커지고 있다. 확실히 기간을 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수생 등은 수시원서 접수도 여차별을 겪었다고 한다.

고3 학생들은 교사와 직접 대화하며 수시 원서를 작성하지만, 재수생들은 원격 상담만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원격으로 수시 원서 접수를 돕고 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답해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어쩔 수가 없었다”며 “학생들은 또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고 전했다.

김씨도 “자기소개서 상담도 원활하지 못했고, 수시 지원 전략 상담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학원에 가지 못하니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조씨 역시 “원래는 학원에서 상담할 때 수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주 보고 말할 수 없으니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며 “시간도 지연되고 불안감이 커진다”고 했다.

재수생들은 다른 고위험 시설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수업이 간절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켜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학원에서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가 3회 적발되면 학



추석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학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원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원을 나가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대형학원에서 스터디 카페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학원을 막는다고 해서 수험생 사이 접촉이 사라지는 않는다는 의 미다.

김민정기자



한산한 선별진료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두 자릿수로 집계된 5일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석연휴 타지역 확진자 접촉’ 광주 7명 자가격리

2명 음성 판정

추석 연휴 타지역을 방문한 광주 시민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증상이 있을 경우

이동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 검사를 당부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추석연휴 광주지역에서는 7명이 타지역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돼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 이들 중 2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을 받았으며 나머지 5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들은 2주 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추석연휴 각각 경기도와 전북 등지의 친인척 집을 방문했으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전북도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를 파악해 광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희기자

5·18 단체 “뉘우치지 않는 전두환에 역사적 단죄를”

“판결로서 반인륜 범죄·역사왜곡 근절 의지 보여달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검찰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월 단체들은 전씨의 형사재판 결심 당일인 5일 한목소리로 “재판부가 전씨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해 역사적 단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5·18 유족회장은 “전씨는 이번 재판 내내 황제골프, 12·12쿠데타 기념 만찬 등 친인공노할 행태를 보여왔다”며 “죄에 대한 일말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사법부가 최고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중 5·18부상자회장은 “전씨가 5·18 헬기 기총 사격은 물론이고,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사실마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전씨를 엄벌해달라. 단죄가 이뤄져야 사죄가 있다. 그 이후에야 용서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씨의 악행에 비하면 사자명예 훼손 혐의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분명하다”면서 “사법부는 권력자의 반인륜적 범죄와 역사 왜곡·폐쇄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번 판결로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기소 2년 5개월 만의 구형이다.

전씨는 법원 허가에 따라 이날도 법정엔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재판 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

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과립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